

‘타격 장인’의 멈춤없는 전진...“나이를 잊었다”

‘베테랑 품격’ KIA 최형우, 2025 시즌 ‘뜨거운 도전’은 계속된다

불혹에도 더욱 뜨거운 방망이 에이징 커브는 없다 기록 경신은 기본...존재의 가치를 실력으로 증명 멘토십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끄는 살아있는 전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타격 장인’ 최형우가 새해에도 뜨겁게 타오른다.

경험과 연륜을 무기로 한 ‘베테랑의 품격’을 뽐내며, 2025년 시즌에도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전망이다.

2024시즌 최형우는 그야말로 팀 간판 타자다운 면모를 보이며 맹활약을 펼쳤다.

생애 여섯 번째 우승 반지와 일곱 번째 황금 장갑을 손에 붙이며, KBO 리그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페이지를 장식했다.

특히 올스타전에서는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되며, 나이를 무색케 하는 건재함을 과시했다.

팬들은 그의 베테랑 후예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시즌을 앞두고 맺은 1+1년 총액 22억 원(옵션 2억 원)의 비FA 다년 계약은,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선수 중 역대 최고령의 다년 계약이라는 점에서 야구계를 뜨겁게 달궜다.

이는 구단이 최형우에게 보내는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그리고 ‘역시’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듯, 최형우는 이러한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다.

2024 정규리그에서 최형우는 타율 0.280, 22홈런, 109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핵탄신’을 이끌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타율 0.333, 1홈런, 4타점을 때리며, ‘클러치 히터’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그의 존재감은 팀의 중요한 순간마다 더욱 빛났다.

마치 해결사 본능이 DNA에 새겨진 듯,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승타를 때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의 방망이가 만들어내는 짜릿한 순간들은 팬들의 노리에 깊이 각인됐다.

2025시즌 최형우는 또 한 번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격 장인’으로서의 위용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나이는 그의 뜨거운 도전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노련미와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정확한 타격 기술은 더욱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의 방망이는 여전히 KBO 리그 투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올 시즌에도 그는 KBO 역사에서 통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타점과 2루타 부문의 기록을 더욱 압

도적으로 경신해 나갈 것이다. 타석에서는 기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만, 그는 단순히 기록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선수다.

최형우의 존재는 단순히 뛰어난 타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훌륭한 본보기이자 든든한 조력자이며, 팀 전체에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존재다.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끊임없이 후배들을 격려하고 조언하며,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그의 헌신과 리더십은 팀의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귀중한 원동력이 됐다.

팬들에게도 그는 특별한 존재다. 최형우의 방망이에서 터져 나오는 강렬한 타구는 단순한 안타 그 이상이다. 그것은 팬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순간이자, KIA 타이거즈라는 팀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그의 방망이는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여전히 팀에 목직히 울림을 준다. KIA 팬들과 KBO 리그 팬들에게 있어 최형우는 한 해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이자, 야구가 주는 감동의 상징이다.

2025년에도 그는 ‘노장의 품격’을 방망이로 증명할 것이다.

최형우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KBO 리그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여전히 빛나는 미래다.

/주철침 기자



지난 12일 열린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창단 첫 3연승을 장식한 AI페퍼스 선수단이 코트에서 기쁨을 함께하고 있다.

(KOVO 제공)

‘무서운 뒷심’ AI페퍼스, 창단 첫 3연승

테일러·이한비 쌍포 앞세워 선두 노리던 현대건설 제압 12득점 박정아, 여자배구 역대 두번째 6천 득점 고지

‘막내 구단’ AI페퍼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AI페퍼스는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방문 경기에서 세트 점수 3-1(25-21 13-25 25-19 26-24)로 승리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데 이어 올스타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였던 IBK기업

은행에서 승전고를 울렸고 다시 현대건설을 잡아내며 창단 첫 3연승을 장식했다.

구단 한 시즌 최다승리 기록을 8로 늘린 AI페퍼스는 올 시즌 8승 12패(승점 24)로 5위를 유지했다.

역대 최다 승리(중전 5승)와 승점(중전 17점)을 기록 중인 AI페퍼스는 후반기 남은 경기에서 승리를 더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4위 IBK기업은행(11승 8패·승점 32)과의 승점차를 좁히며 4위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봄배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AI페퍼스는 테일러와 이한비의 쌍포를 앞세워 1세트를 손쉽게 가져왔다. 2세트에서는 잦은 범실로 세트를 내줬지만 3세트 박정아와 테일러의 공격이 살아나며 박빙의 승부 끝에 세트를 가져왔다.

분위기를 탄 AI페퍼스는 4세트 22-4까지 몰렸지만 테일러의 연속 득점으로 24-24 듀스를 만들었고, 이한비의 서브에이스와 박정아의 블로킹으로

박빙의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테일러가 24점으로 공격 선봉에 섰고, 이한비가 20득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한비는 이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22개의 디그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12득점을 올린 박정아는 여자 역대 두 번째로 개인 통산 6천 득점(6천7점) 고지를 밟았다.

지난 9일 IBK기업은행과의 5세트에서 지고있는 상황에서 연속 4득점으로 역전승을 이끌어내며 기세를 탄 AI페퍼스는 이날 리그 선두를 노리던 현대건설을 잡아내며 후반기 여자프로배구 판도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AI페퍼스는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체육관에서 선두 흥국생명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 /박희중 기자

“스스로 해법 찾은 선수들 자랑스러워”

장소연 AI페퍼스 감독

극적인 역전승으로 팀 창단 후 최다 연승을 기록한 AI페퍼스 장소연 감독은 “선수들을 믿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소연 감독은 12일 창단 후 첫 3연승을 올린 뒤 “(승부가 갈린) 4세트 막판에도 선수들을 믿고 있었

다”라며 “선수들도 자신을 믿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것 같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최근 페퍼저축은행은 전혀 다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장소연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

고 선수들에게 두려움 없이 싸우는 동물, 몽구스처럼 한 시즌을 치러지고 했다”며 “선수들은 몽구스처럼 어려운 순간마다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을 키웠다. 이 과정이 3연승을 일군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스스로 해법을 찾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매 경기 집중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고 했다.

다음 상대는 1위 흥국생명이다. 흥국생명은 최근 부상 선수가 속출하며 2연패 하는 등 흔들리고 있다.

장소연 감독은 “흥국생명전도 많은 경기 중 한 경기라고 생각하겠다”라며 “최근 원정경기를 많이 치르면서 선수단에 피로가 쌓였지만, 잘 준비해서 (4연승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박정연 (주)승후테크 대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1천만원 기탁

박정연 (주)승후테크 대표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주)승후테크는 2015년 설립된 광산구 소재 특수시멘트 혼합제조와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장애인·소외계층 합동결연식에 4천만원을 후원했고, 박정연 대표는 2021년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박정연 대표는 남편인 신현국 도경건설 대표의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1기 발전위원회 활동으로 장애인체육과 인연을 맺게 돼 장애인체육선수 육성

을 위한 뜻깊은 후원금 조성에 동참하게 됐다.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제2기 발전위원회 출범에 큰 힘을 보태준 박정연 대표께 감사드립니다”며 “후원금으로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서 마음껏 꿈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연 (주)승후테크 대표는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의 경영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 장애인·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

오늘 정상 진행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예정됐던 14일에 그대로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

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천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권 발표를 진행할 뉘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사건 신청서를 모두 받은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심문을 진행했고, 선거일을 하루 앞둔 이날 전격 기각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